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CONTENTS

본 프레스킷은
대통령 연설문을 발췌해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소개 및 이력	04
2026 신년사	08
2026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12

Part 1. 정치·사회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18
<민주주의 회복, 그 1년> 외신기자회견 모두발언	20
울산 타운홀미팅 모두발언	21
2026년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 명절 인사	22
제107주년 3·1절 기념사	24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26

Part 2. 경제·산업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	30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축하	32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34

Part 3. 외교·안보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38
중국 국빈 방문 관련 SNS 메시지	40
한일 정상회담 (나라) 공동언론발표	42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	46
한일 정상회담 (안동) 공동언론발표	48

Part 4. 문화·관광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	52
아카데미 수상 관련 SNS 메시지	53

Part 5. AI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 모두발언	58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관련 SNS 메시지	60

대통령 소개 및 이력



인적 사항	성명	이재명 (李在明, Lee Jae Myung)
	생년월일	1964년 12월 22일
	가족	김혜경 여사, 2남
학력	1978. 8.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0. 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6. 2.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사법연수원 수료 (18기)
	1989	법률사무소 개업, 변호사 개업
	198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1990~1994	이천노동법률상담소 및 광주노동법률상담소 소장
	1994~2005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2010~2018	성남시장
	2018~2021	경기도지사
	2022~2025	제21, 22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2022~2025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	대한민국 대통령
저서	2018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2022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2022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2025	『결국 국민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래는 과거보다 낫고,
현재보다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희망과 회복력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공장의 소년 노동자에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한 그의 여정은 진정성과 공감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갈망하는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과 노동·인권변호사 활동, 그리고 진보적 공공행정을 두루 경험한 그는 평등과 기회,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그의 비전은 정의·기회·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염원을 담고 있으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이재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향한 그의 여정은 남다른 의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6년 삼계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남시로 이주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3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연령에 미치지 못해 정식 계약조차 맺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 환경을 견뎌야 했지만, 그는 배움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힘들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독학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1986년 23세의 나이에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부나 권력이 아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에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1989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 상담소, 반부패 활동 등 시민 운동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사회 정의와 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후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성남 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다 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성남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지사로서 진보적이고 복지지향적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과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24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2025년까지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국민들의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얻으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재명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등산·바둑·낚시·산책을 즐깁니다. 열렬한 독서광이기도 한 그는 인생의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긴다.”라는 좌우명처럼,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2026. 1. 1.

2026년 신년사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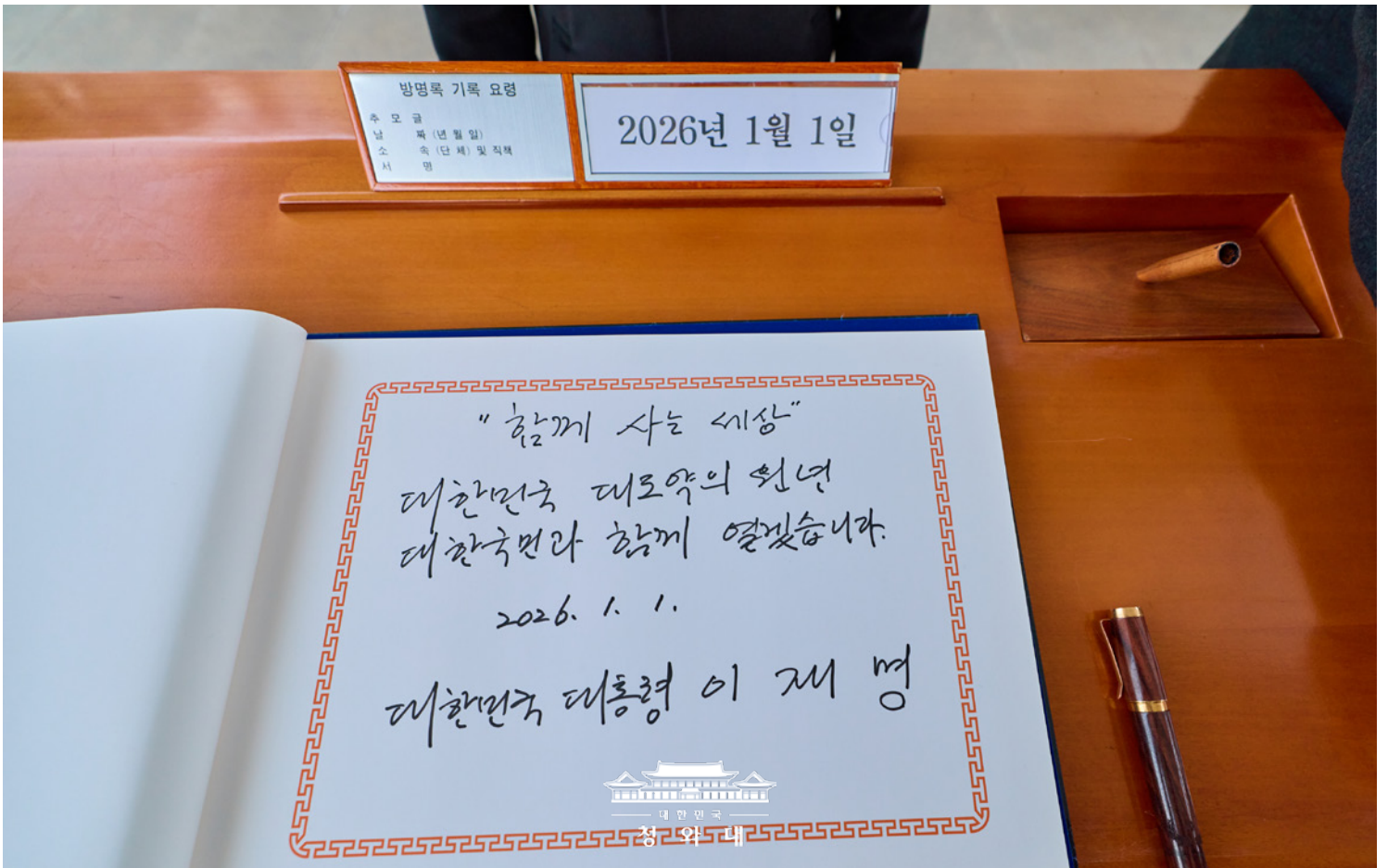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뚝뚝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입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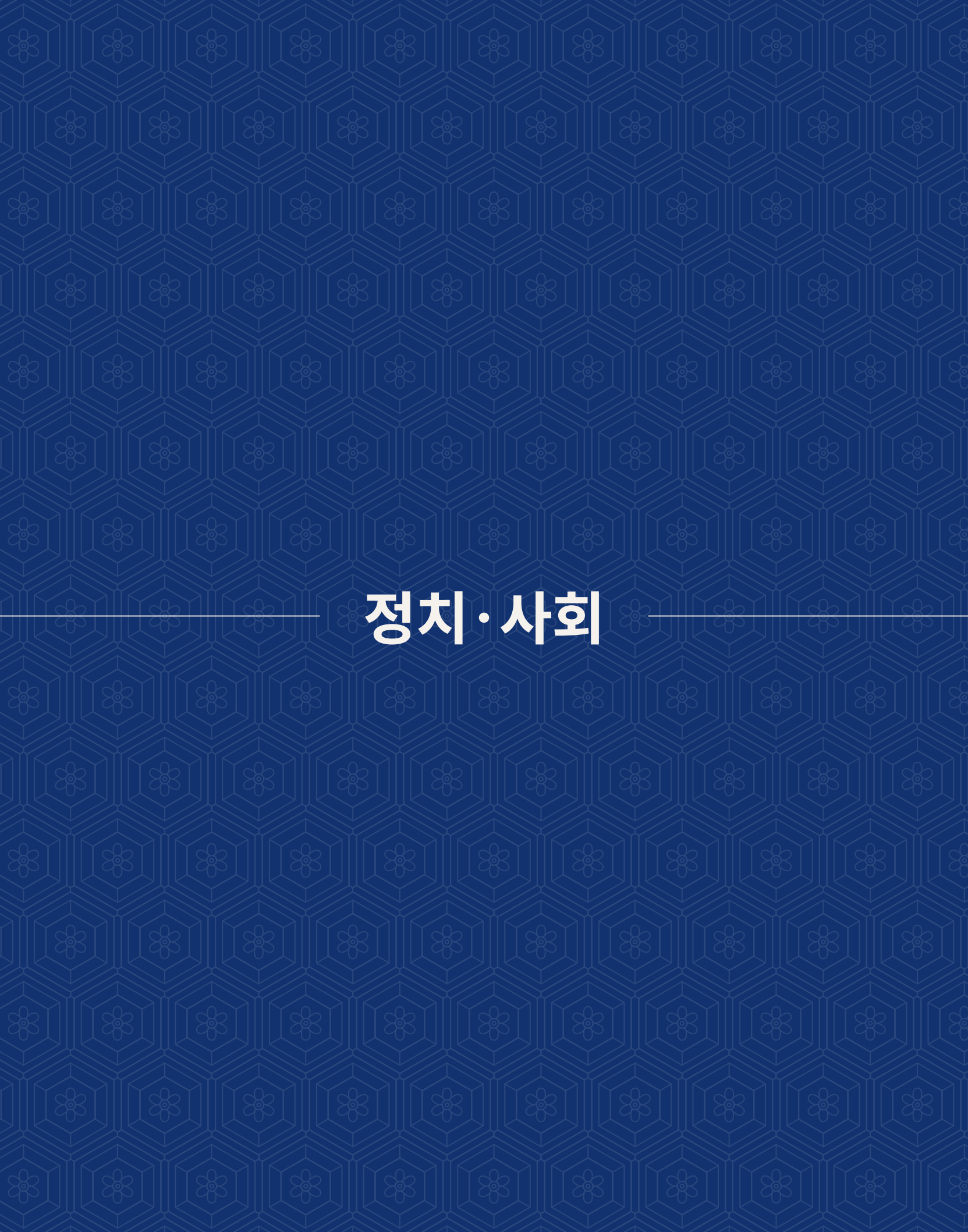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천 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PART

1



정치·사회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5. 12. 3.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 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이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 12. 3.

〈민주주의 회복, 그 1년〉 외신기자회견 모두발언

대한민국에는 근현대사에 특별한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 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함께 관심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 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울산 타운홀미팅 모두발언

수도권 집중 전략은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더 이상 여유가 없고, 지방은 기회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곳에 몰아주는 전략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2026. 2. 17.

2026년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 명절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에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2026. 3. 1.

제107주년 3·1절 기념사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 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아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서 목숨을 바쳐 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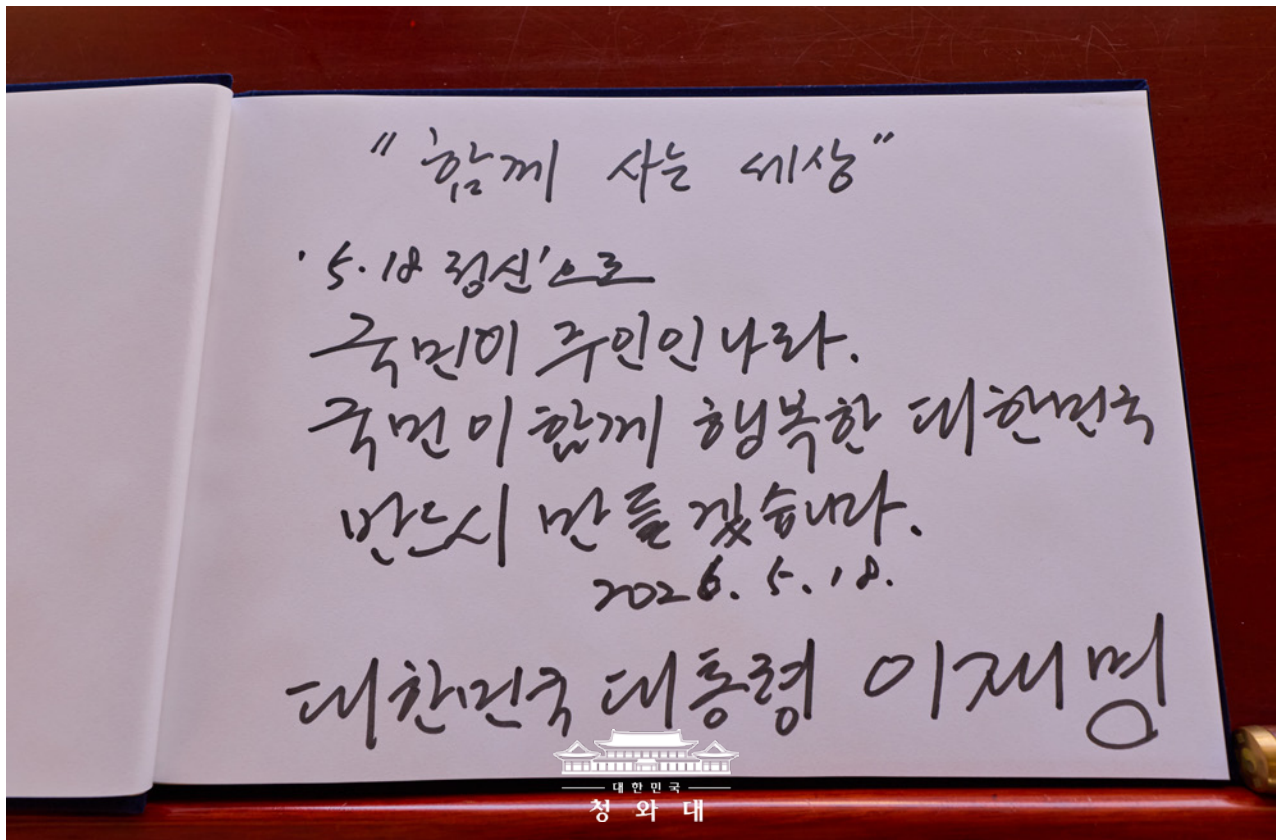
5·18 정신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입니다.

2026. 5. 18.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딛고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마흔여섯 번째 맞이하는 오월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오월 영령과 국민 여러분 앞에, 이를 위한 세 가지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堂堂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오늘 정식 개관하는 이곳 전남도청을 세계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오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시민들이 함께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오롯이 새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가 걸어온 그간의 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봅니다. 오월의 기억과 5·18 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PART

2



경제·산업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2026. 2. 13.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



이재명

@Jaemyung_Lee

...

...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입니다.

...



© 돌로이마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2026. 3. 25.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축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낮은 유지비용, 기체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 등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2026. 4. 2.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 내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술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PART

3



외교·안보

벽란도 정신으로 다시 잇는 한중협력의 항로

2026. 1. 5.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고려의 벽란도는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송나라와의 해상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항구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나루'라는 뜻의 이름처럼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양국의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오늘의 한중 협력도 산업 혁신과 안정적 공급망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잇고, 각자의 시장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협력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에서의 혁신과 협력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조AX, 즉 제조 전반에 AI를 접목해 기업이 기술혁신과 생산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양국이 혁신을 통해서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정책과 기술을 참고하며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활발한 문화교류입니다. 최근 양국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상호 방문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콘텐츠, 게임, 공연, 문화 플랫폼 등 생활 서비스 전반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 협력은 기업 간 신뢰를 쌓고 제조업과 소비재 투자, 신시장 개척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한중 경제인 여러분, ‘물을 건너는 데는 배가 필요하지만, 배를 띄울지는 사람이 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중 협력의 배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도 양국 기업이 협력의 항로를 넓혀 가는 데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갖추나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천만금보다 귀한 서로의 이웃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 중국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향해

2026. 1. 6.

중국 국민 방문 관련 SNS 메시지



이재명 ✓
@Jaemyung_Lee



...

2026년 새해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에게 올해 첫 국민 외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서로에게 소중한 외교적 자산임을 재확인하고, 정상 간 만남을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서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가꾸기 위해 힘을 모으고, 불법 조업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元年)'으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삼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3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2026. 1. 13.

한일 정상회담 (나라) 공동언론발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 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함께할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2026. 4. 3.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입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이처럼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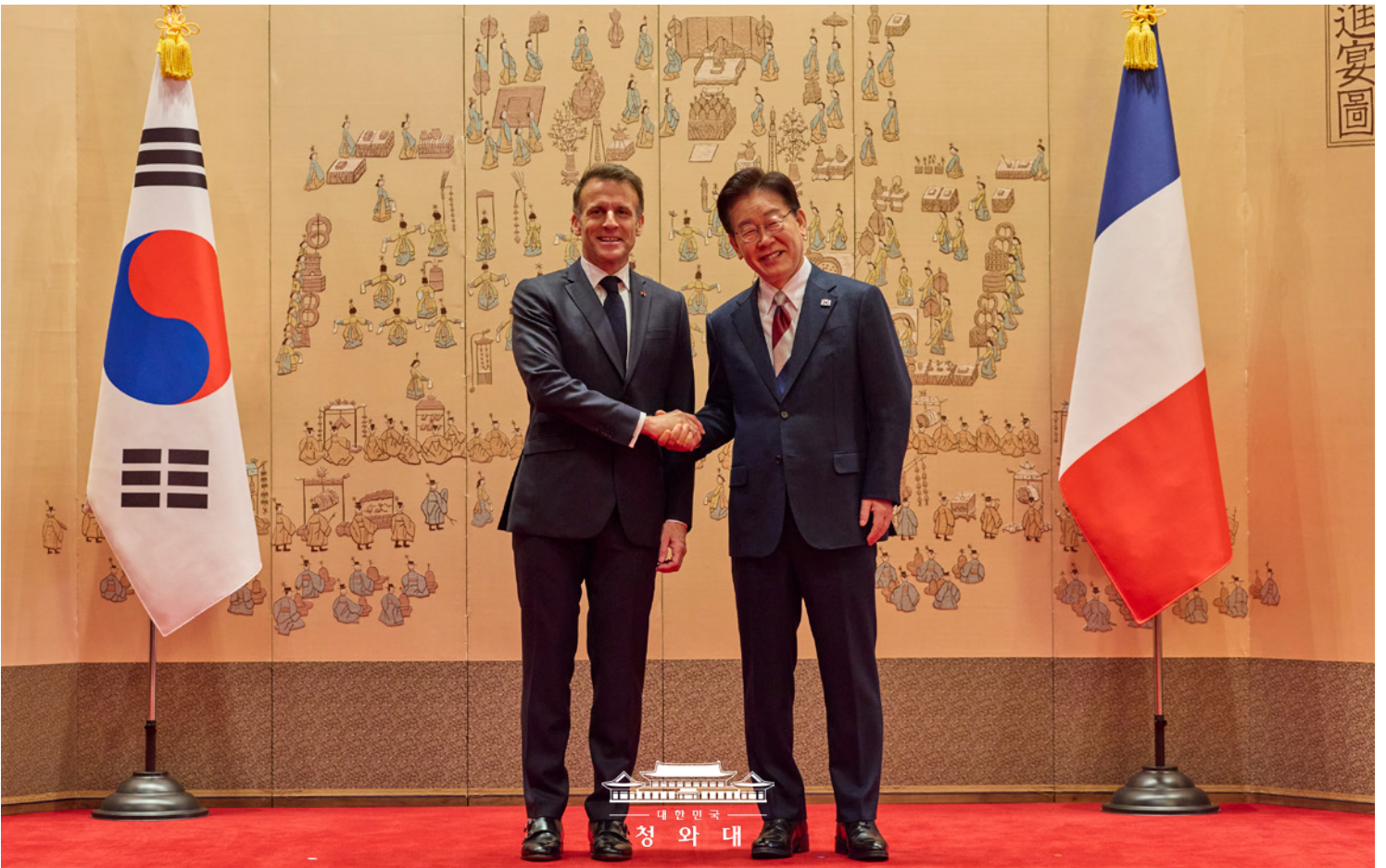
둘째,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6. 5. 19.

한일 정상회담 (안동) 공동언론발표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고 역사적인 교류가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우정과 유대가 그만큼 두텁고 또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일 간 연간 인적 교류가 1,300만 명에 달하고, 양국의 청년 세대들은 지방 도시의 숨은 매력을 찾아 활발히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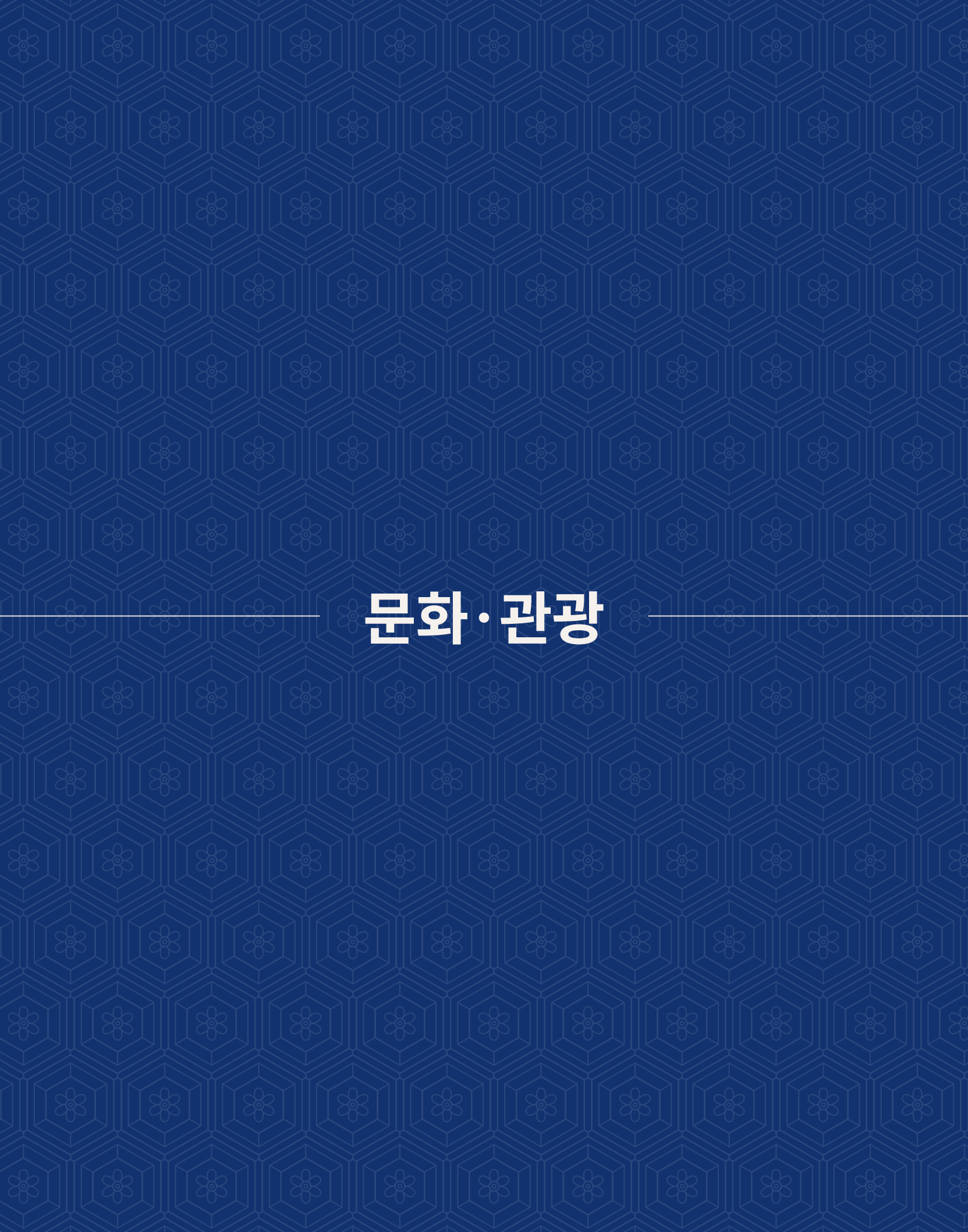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네 차례나 함께 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정상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60주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PART

4



문화·관광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2026. 2. 25.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K-컬처는 세계인을 웃고 울리면서 콘텐츠의 세계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모니터 속 환호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전 세계인이 직접 대한민국 땅을 밟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K-컬처 폭발적 에너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과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서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2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6. 3. 16.

아카데미 수상 관련 SNS 메시지



이재명 ✓
@Jaemyung_Lee



...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문화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케이팝의 역동적 에너지와 한국적 감성, 그리고 독창적 상상력이 어우러져 새로운 즐거움을 전하며 우리 문화의 지평을 한층 넓혀 주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이제 다음 세대의 창작자들은 더 큰 꿈을,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빠르게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펼쳐갈 새로운 창작의 여정도 꾸준히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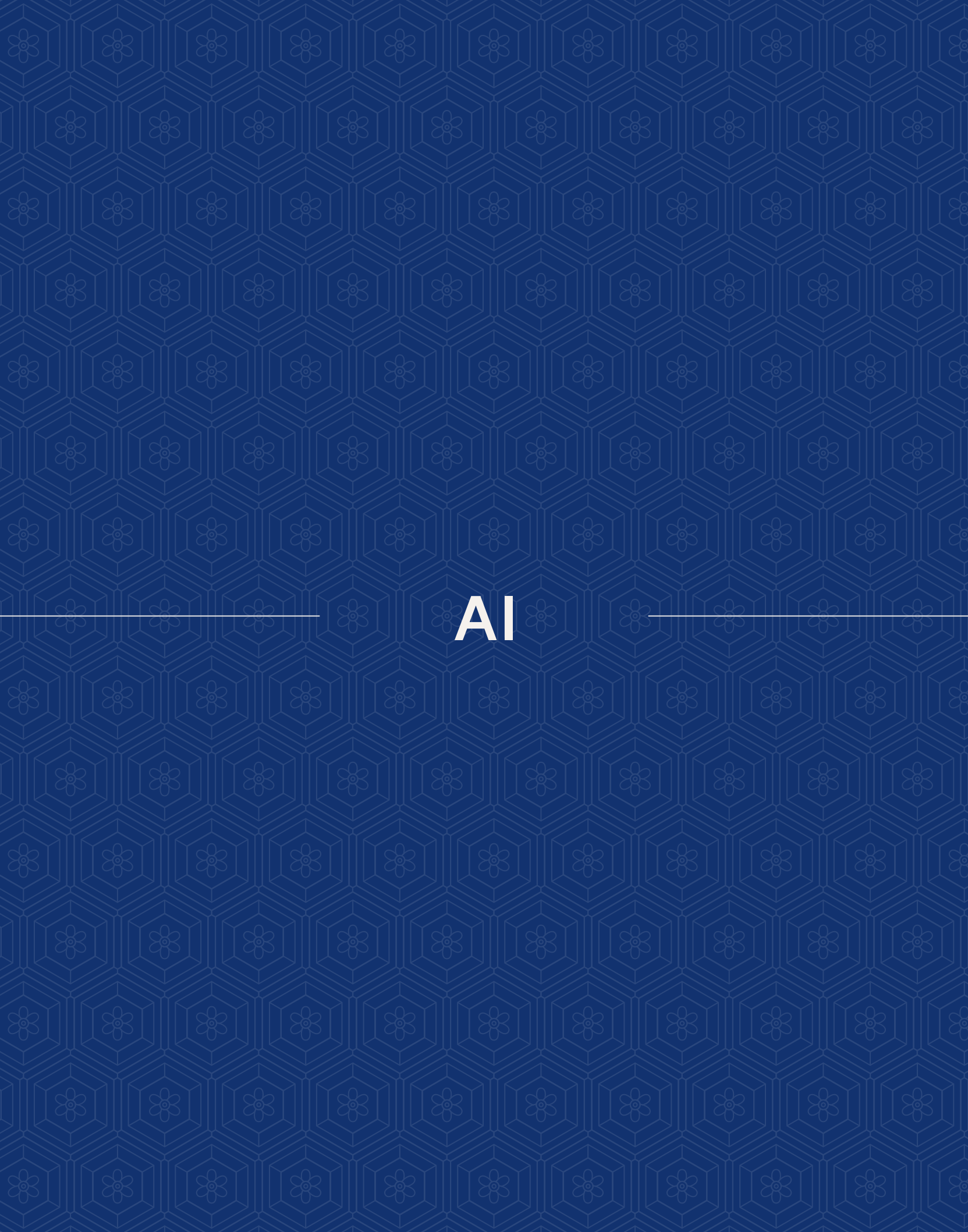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어느덧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



PART

5

The image features a solid blue background with a repeating pattern of light blue hexagons. Each hexagon contains a stylized five-petaled flower. In the center of the image, the letters "AI" are displayed in a large, white, sans-serif font. Two thin white horizontal lines extend from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AI" text, meeting the edges of the frame.

AI

'인공지능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6. 3. 2.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 모두발언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 구조와 일자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바꾸는 핵심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K-VCC)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민간 주도 협력으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는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이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시발점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고, 청년들이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 성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Korea-Singapore AI Connect Summit

한·싱 AI 커넥트 서밋

2 March 2026 | Singapore



전북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2026. 2. 27.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관련 SNS 메시지



이재명 ✓
@Jaemyung_Lee

...

...

현대자동차그룹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을 첨단산업과 친환경 에너지의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이곳에 로봇 제조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대한민국 AI, 로봇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래 세대의 삶과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매우 대담한 도전입니다. 전북과 호남의 경제지형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새만금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 현실화되길 기대합니다.

...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S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

지환경부
장관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

HYUNDAI
MOTOR GROUP
정익선 회장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

전북
김



